

##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관현악지속연주지원 2차 공모 지원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관현악지속연주지원 2차 공모
- 회의일시 : 2017. 5. 24(수)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 전체회의실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관현악지속연주지원사업>의 2차 공모사업에는 총 14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8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당일 심사에 앞서 ‘예술위’측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심의 평가 기준 등이 설명된 자료와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각 심의위원들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모든 지원서류들을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

심사 당일에는 종합토론과 개별평가로 구분되어 심의가 진행되었고, 이후 상위로 선정된 단체들의 지원 금액이 논의되었으며, 고득점 순으로 지원 금액이 차별적으로 조정되었다.

본 심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기존 창작곡의 음악적 완성도, 작품의 예술적 성취의 기대효과, 연주단체들의 연주력 등이었고, 이와 함께 지원단체들의 최근 3년간의 연주활동이 집중적으로 조망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로부터 제기된 사항은 지원단체들에 의해 제시된 창작품의 ‘예술적 질’을 과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최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지명도가 확보되고 일정한 검증이 확인이 된 작곡가가 있는 반면에, 거의 알려지지 작곡가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심의과정에서는 이러한 작곡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판단은 그와 같은 창작품을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연주단체의 기획 능력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연주단체들의 연주력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제기가 반복되었다. 그러다보니 일련의 지원 사업을 목표로 하여 임의적으로 구성되는 연주단체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거듭해온 단체들이 상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앙상블의 기량은 오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연습과 연주를 통해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본 사업의 취지에 상응하여 동일(혹은 유사한) 조건일 경우 ‘지역소재 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었음도 덧붙인다.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관현악지속연주지원 2차 공모
- 회의일시 : 2017. 5. 24(수)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 전체회의실

또한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단체들의 실내악 편성 규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본 사업의 취지가 “관현악지속연주지원”이기 때문에 현악4중주와 소수의 악기(관악기 혹은 피아노)가 첨가된 실내악 편성, 또는 10명 내외로 구성된 실내악 편성이 과연 본 사업 취지에 상응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2관 편성 규모(약 60-70명)의 관현악 편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하였다. 즉 상당수의 심의위원들에 의해 제기된 편성규모 논란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한편, 일부 단체의 경우 본 사업의 지원항목 별 지원규모가 사전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응모를 하였거나, 혹은 지원항목별 예산규정을 아예 무시한 채 지원금액을 과다책정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향후에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사업취지와 지원항목 내용을 인식하여 지원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심의에서는 음악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본 사업이 보다 많은 음악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홍보의 강화, 그리고 지원항목 중 ‘작곡가의 작품 사용료’에 비해 ‘연주자들의 연주비 지원액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에 의해 피력되었고, ‘예술위’의 차후 사업에서의 반영을 건의하였음을 덧붙인다.

